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201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 인사 청문 개요

가. 인사청문 대상자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박진섭)

나. 인사청문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15.8.17)
-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16.6.30)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개정('16.11.10)

2. 인사청문 실시경과

가. 인사청문 실시경위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2016.11.10자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장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개정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박진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6.11.14자로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이 접수되어, 같은 해 11월 24일 박진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

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경과

| 일 시 | 안 건 | 심 사 결 과 | 비 고 |
|-------------------------|--|---|---------------------|
| 2016.11.18.(금) 13:30 |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 | - 위 원 장 : 이승로 의원 - 부위원장 : 김영한 의원 - 부위원장 : 박마루 의원 | 환경수자원 위원회회의 실 |
| 2016.11.24(목) 10:00 | 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박진섭) 인사청문회 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박진섭) 인사청문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환경수자원 위원회회의 실 |

3.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등

가.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직무수행계획서 등 사장후보자 채용시 제출한 서류, 최근 10년간 서울시 SH공사 및 집단에너지사업단 나급이상 계약직 채용실적, 2014년 집단에너지사업단 상근 전문위원 채용 관련, 2014~2015년 집단에너지사업단 계약직 성과평가 방침서, 2014년~2015년 집단에너지단에 대한 서울시 및 SH공사 자체감사 관련, 2015년~2016년 집단에너지사업단 신입, 경력직 사원채용, 최근 10년간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임용 관련 등

나.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내용
 -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책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응모한 이유 및 사장 임명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 서울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체계적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경력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 내부에서 일부 반감이 예상되는데 내부 통합을 이끌어낼 방안, 서울에너지공사 현안 과제는 무엇, 현안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 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견해 및 추진계획 등
- 답변서 <붙임: 참고자료5>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씀 요지

-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사업 등 시민과 밀접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수행할 기관 임
- 따라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시민과 밀접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장 후보자가 과연 기관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임

나.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박진섭) 정책 소견발표 요지

- 최근 국내에서는 동해안 지진으로 인하여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파리기후협정이 공식 발효되어 범국가적으로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음

이러한 시기에 국내 최초 광역지자체 에너지공기업의 첫 사장후보자로 서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지난 20년간 시민환경전문가로서 쌓아온 에너지와 환경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최근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으로서 경험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겠음
- 신설 조직의 리더로서 화합과 소통의 마인드를 가지고 바깥으로는 공사 사업 수립과 집행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안으로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 무엇보다도 공사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음
- 먼저,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하수열 등 친환경 열 에너지 공급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까지 전체 열원의 90%를 친환경 열원으로 구축하겠음
-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겠음. 유희부지 내에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20MW, 연료전지 90MW를 보급하고, 전력자립률 확대기반을 구축하겠음
- 셋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주요 도시기반시설과 대형 건물의 비효율적 에너지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겠음.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물의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음
- 넷째, 공사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을 만들겠음.
시민위원회를 설립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동조합과 청년벤처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을 확대하여 항상 시민 곁에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국내외 지자체들과 협력 사업을 크게 늘리겠음. 국내 타 지자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 선진 도시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겠음

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박진섭)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 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 ○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친환경적 집단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각종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추진력 있게 실행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충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에너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 사장임용 후보자로 최종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 ○ 2015년 7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으로 근무하여 사업단의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 건진성을 확립하고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의 핵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으며,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전문성과 소통의 리더십을 겸비하여 신설 에너지공사의 조직 안정과 시 에너지 사업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장 임명후보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 |
| ○ 2016년 9월 경력직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Y 연구원 임용과정에 문제가 없는가 ? | ○ 당초 10월 1일이던 임용예정일을 늦춰 준 것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에너지사업단의 필요에 의한 것임.○ 특정인을 뽑기 위해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며 시민운동, 환경운동의 도덕성 측면에서도 그러한 일은 없음. 본인은 10월 1일 근무를 위해 국내에 있었고, 임용예정일을 늦춘 것은 회사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 ○ 사장후보자로서의 인사원칙은 무엇인가? | ○ 외부 인사위원을 선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음. 그리고 승진서열명부, 대상인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승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음 |
| ○ 단장에 대한 출퇴근 차량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 | ○ 서울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였으나, 2015년 7월 27일 근거규정을 만들어 차량지원을 받고 있음(변창흠 증인) |
| ○ SH공사의 경우 임원급에 대한 차량제공이 되는가 ? | ○ 공사는 출퇴근용은 없고, 업무차량은 공용으로 쓰고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에너지분야가 독립적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규정을 바꾸어 허용하였음 |
| ○ 사업단장은 그동안 서울시공무원이나 SH공사에서 발령을 내왔는가? 내부에서의 승진요청 공문도 없고, 면접은 어디서 보았는가 ? | ○ 그동안 서울시공무원 또는 사업단 1급이 퇴임하면서 발령을 받아 왔으며 집단에너지사업단 내부승진은 처음임 ○ 회사에서 면접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근처 식당 |

| | |
|---|---|
| | 에서 면접을 실시하였음 |
| ○ 후보자의 정책, 철학은? | ○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시대가 필요한 시대이므로 이를 확대하는 것임 |
| ○ 병역면제사유는 ? | ○ 87년 집시법 구속, 94년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군면제 |
| ○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데 운동권에서 변한 이유는 ? | ○ 당시 민주화운동을 한 것도 시대의 요구, 노동운동을 주로 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운동.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였음 |
| ○ 공직후보자로서의 소감 ? | ○ 본인의 환경문제에 대한 목표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 ○ 마곡지구 280MW CHP 건설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정책비전과 다른 것이 아닌가? |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효율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 ○ 태양광 20MW, 연료전지 90MW 보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 ○ 서울시내 유휴부지, 예를 들면 난지물재생센터 등에 태양광을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연료전지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공급지역과 연계성이 있어야 함. 이것은 단계별로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임 |
| ○ 에너지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면 ? | ○ 수도권주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시민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펀드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함 |
| ○ 에너지공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미리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 기후환경본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었고, 인력채용 지침이 있어 채용한 것임으로 신재생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미리 대비하는 준비차원임. 20명정도 추가 채용할 계획인데, 공사출범이후로 미루고 있음 |
| ○ 전문위원 채용시 연봉산정관련, 전문직 가급의 연봉이 6,780만원을 미리 산정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지. 만약 초과지급되었다면 환수조치해야 할 것임 | ○ 경력산정기준은 일반직 기준으로 산정 |
| ○ 임원추천위원회에 서울시가 추천한 3인에 대해 불신 또는 오해소지가 있음 | ○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 ○ 전문위원에서 사업단장, 공사사장까지 초고속 승진하는 게 되는데 이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 ○ 후보자가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

| | |
|--|---|
| <p>○ 경영혁신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p> | <p>○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적자를 줄이는 것이 경영혁신이라 할 수 있음</p> |
| <p>○ 경력직 연구원 채용기준에서 박사학위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공고가 잘못 된 것인데, 청년취업, 최순실 자녀 부정입학 등의 문제로 사회가 들끓고 있음.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p> | <p>○ 그러면 애초에 취득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 앞으로 채용기준에 대해 엄밀하게 검토하겠음</p> |
| <p>○ 서울시 대표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동시에 전력공급, 현재 전력자립률이 4%인데 2년만에 자립률을 20%로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음.. 임기3년내에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현실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p> | <p>○ 이것은 에너지공사만의 과제는 아니고, 결국 생산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p> |
| <p>○ 임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한 사유는 ? 규정이 따로 있는가?</p> | <p>○ 실, 지사장에게만 별도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함</p> |
| <p>○ 에너지사업단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었는데, 3명의 임추위원들과 아는 사이인가? 아는 사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전형적인 박원순 시장 코드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p> | <p>○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p> |
| <p>○ 서울에너지공사가 다른 공사에 비해 가지는 강점은 ?</p> | <p>○ 서울에너지공사의 강점은 우선 지난 30년간 축적된 집단에너지 운영 경험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사는 발전소 배열, 바이오 매스, 하수열등을 통한 신재생가능 열원 발굴과 분산형 가스 열병합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열공급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서울시 공기업으로서 갖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용이하며 시민이 믿고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임</p> |
| <p>○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p> | <p>○ 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임.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 따라서 공단에서 벌어들인 경영수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됨. 이에 반해 공사는 단독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민간의 자본참여도 가</p> |

| | |
|---|--|
| | 능하여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 시장과 어떤관계이며 언제부터 잘 아는 사이인가? | ○ 예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은 사실임 |
| ○ 시장에 누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 시장이나 본인을 추천해주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 ○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임원인가? | ○ 임원이 아니고 임원급이다. SH공사 정관에 사업단에 임원에 준하는 사업단장을 둔다는 규정이 있음 |
| ○ 박원순식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평이 있고, 에너지사업단의 전문위원, 단장,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이고 이례적인 일인데 | ○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여 에너지공사 잘 셋팅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노력하겠음 |
| ○ 채용공고시 2개월 규정두는게 오해소지가 있다 | ○ 타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이다. |
| ○ 4명의 경력직 채용시 서류, 면접으로 심사하였는데 문제는 없는가 ? | ○ 면접을 까다롭게 시행하였고 프리젠테이션 발표 까지 하도록 하여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음 |

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최종발언 요지

- 긴 시간 동안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안고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오늘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을 통하여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음. 또한, 오늘 의 자리를 통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높은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음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충고와 고견들을 깊이 새기고 건실한 서울에너지공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공사 경영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서울에너지공사가 표방하게 될 시민참여의 정신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 인사청문 요약 및 종합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 11월 24일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식견, 공사 현안과제 등에 대한 이해도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경영능력 등에 관한 인사청문 요약

첫째, 공사 사장 공모 절차 및 최종 후보자 내정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모집공고 결과 사장후보자는 2명이 지원하였고, 지원자 2명에 대해 1·2·3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명의 후보자를 선발하여 서울시장에게 추천하였고, 서울시장은 최종 후보자(박진섭)을 내정(2016.11.14.)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음

둘째, 후보자가 공사 사장으로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시민환경전문가로서 쌓아온 에너지와 환경정책 분야의 전문성, 갈등조정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에너지 사업단에 2014년 9월 전문위원으로 입사한 이후, 2015년 5월부터 에너지공사 설립 T/F 실장을 역임하며 에너지공사 설립을 주도하였고, 2015년 7월 집단에너지 사업단장으로 승진임용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으로서 경험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셋째, 공사의 최우선 해결과제와 가장 중요한 임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의 현안과제로는 마곡 열병합발전의 성공적 건설,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확보, 공사재정의 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음. 마곡 열병합발전은 서울시의 2020년 전력자립률 20%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노후화된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대체 역할로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음. 집단에너지 사업단은 집단에너지사업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외부전문가 충원이 시급한 실정임. 집단에너지사

업은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의 재정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근 미활용에너지 연계열 활용 및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4%에 불과한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것과 2025년까지 전체열원의 90%를 친환경열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넷째,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2016년말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는 마곡 투자사업비와 긴급 차입금(운영결손 총당)에 따른 712억원이며, 향후 공사의 부채는 상당부분 마곡 투자비에 따른 부채로 예상됨. 그러나, '16년 이전 결산잉여금 약 150억원으로 공사출범과 함께 우선 상환하고 저가 열원의 활용과 마곡 CHP 건설을 통한 수지 개선으로 2026년까지 부채상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마곡부지 투자, 시민펀드 등을 통하여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서울시 투융자기금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과 부가가치세 소송에 패소할 경우 이 금액도 부채가 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섯째, 공사 사장의 인사원칙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

인사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에 의한 관리, 절차 공개 및 인사부서 직원의 청렴성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학연·지연·성별 등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부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적 면접심사 강화', '승진, 전보기준 등 인사기준 투명한 사전 공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심사구체 제도 활성화'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다만,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2016년 경력직 채용시 합리적인 사유없이 임용일을 연기하여 우수한 인재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임

나. 종합의견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박진섭)가 제출한 제출서류, 추가 자료요구 및 서면질의답변 그리고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 능력, 후보자의 이전 경력 등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하였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2015년 7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며 사업단의 경영혁신을 통해 2년 연속 흑자전환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의 핵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으며,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전문성과 소통의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조직 안정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같은 서울시의 에너지 사업을 책임있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하여,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함

청문회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으로 근무시 채용과정에서 직급 및 연봉수준 논란, 성과평가, 사업단장 임용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집단에너지사업단의 행정처리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후보자를 사업단장으로 임용할 때도 투명하지 않은 SH공사의 인사행정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 그리고, 2016년 경력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여 응시자 또는 채용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음

공사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이나 후보자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채점을 한 것에 대해 후보자와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는 점을 청문위원들로부터 지적당한 바 있음

향후 후보자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충실히 서울에너지공사 경영에 임해줄 것을 권고함

6. 첨부자료

- [참고자료 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박진섭) 주요 경력
-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참고자료 4]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 [참고자료 5]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질의답변서

【참고자료 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박진섭) 주요 경력

| | |
|---------|---|
| 1. 성 명 | 박진섭 (朴進燮) |
| 2. 생년월일 | 1964년 5월 28일 |
| 3.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65길 32 (명일동 임성아트빌 401) |
| 4. 학 력 | 1996. 2.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학사(졸업) 2002. 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환경정책학과 석사(수료) |
| 5. 주요경력 | 2015. 7.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단장(~ 현재) 2015.10.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15. 7월) 2013. 6. 서울도시철도ENG 사외이사(~14. 6월) 2008. 5. 환경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원(~10. 5월) 2007. 2.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 전문위원(~08년) 2006. 5. 대통령자문지속발전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 전문위원(~14.10월) 2006. 1. 사단법인 생태지평연구소 상임이사 (~14.10월) 1996. 7.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05.12월) |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 위원명단 >

| 구 분 | | 위 원 명 |
|------|--------|--|
|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이승로 위원 |
|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김영한 위원 |
| | 새누리당 | 박마루 위원 |
| 위 원 | 더불어민주당 | 김광수(도봉2) 의원, 김동승 의원, 김제리 의원, 전철수 의원, 최웅식 의원, 한명희 의원 |
| | 새누리당 | 박성숙 의원, 우미경 의원, 이상묵 의원, 진두생 의원 |

< 직원명단 >

| 직 위 | 직 원 명 |
|--------|----------------------|
|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전문위원 이재효 |
| 의사지원팀장 | 김달호 |
| 입법조사관 | 박귀수, 피재황, 조창훈 |
| 주 무 관 | 박준우, 이지훈, 장진영, 박해기 |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일 시 | 안 건 | 심 사 경 과 | 비 고 |
|-------------------------|--|--|---------------------|
| 2016.11.18.(금) 13:30 |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 자 인사청문 증인 및 참고 인 출석요구안 | - 위 원 장 : 이승로 의원 - 부위원장 : 김영한 의원 - 부위원장 : 박마루 의원 | 환경수자 원위원회 회의실 |
| 2016.11.24(목) 10:00 | 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 자(박진섭) 인사청문회 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 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의 건 |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 보자(박진섭) 인사청문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 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서 채택 | 환경수자 원위원회 회의실 |

【참고자료 4】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 인사청문회 개요

가. 목 적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체결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하여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16.11.10)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설립예정 포함)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서울에너지공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서('16.6.30)

3.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별지 2>의 내용이 포함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안 건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박진섭) 인사청문회

다. 인사청문회 실시 : 2016. 11. 24(목) 10:00

라. 장 소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인사청문회 진행방식

- 가. 위원회는 임명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선서를 하게 한 후 10분의 범위에서 임명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
- 나.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 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음.
- 다. 위원별 본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음.

■ 자료제출요구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거쳐 시 및 서울에너지공사에 임명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및 서울에너지공사는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재사항

- 청문개요, 청문특위 활동경과, 청문 실시 내용, 심사결과 요약, 첨부자료

(임명후보자 이력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인사청문계획서, 자료미제출 사유, 서면질의 답변서 등)

나.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박진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함.

【참고자료 5】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1. 사장 후보자의 소신과 역할, 경영철학 등에 관한 사항

1-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통하여 시민의 일반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의 중요한 실행조직입니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위급성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국제사회가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체제를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획기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 속에서 에너지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고, 서울시를 친환경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서울형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친환경적 집단 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각종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추진력 있게 실행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충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에너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1-②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응모한 이유 및 사장 임명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재임중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에너지공사 설립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에너지공사의 사업내용 및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장에 응모하였습니다.
- 2015년 7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으로 근무하여 사업단의 경영

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의 핵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으며,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전문성과 소통의 리더십을 겸비하여 신설 에너지공사의 조직 안정과 시 에너지 사업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장 임명후보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③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사에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업무로는 경영관리 혁신, 인사·교육훈련제도 개선, 고객 서비스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 지방공기업 종합혁신 방안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관리 수준이 선진적 지방공기업 수준으로의 전환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수탁운영체제에 머물러 있던 경영관리제도는 혁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30여년간 집단에너지사업에만 전문화 되었기에 집단에너지사업 이외에 신재생 에너지분야 등에서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사에서는 인사·교육훈련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를 조기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곡지구 등 열공급 지역 확대 및 열사용가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열사용 고객시설 정밀점검, 열사용가 기술교육, 상시 고객 간담회 등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강화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공사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1-④ 서울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체계적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적 기반이 되는 집단에너지사업 부문은 30년 이상 장기간 위탁운영체제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기업으로서 필요한 경영 독립성과 자립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공사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경영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다른 지방공기업 수준의 경영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은 별도의 독립된 경영·조직·회계·인력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사업적으로도 집단에너지 이외에 연료전지, 에너지진단, 하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시스템은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 지방공기업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인적자원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집단에너지사업에 특화된 현재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 인사·교육훈련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1-⑤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 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입니다.
-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벌어들인 경영수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됩니다. 공단의 대부분은 업무 중 일부를 수탁받거나 또는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사는 단독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민간의 자본참여도 가능하여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⑥ 부정부패 척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 서울에너지공사는 신설 공사인만큼, 공사 설립 초기부터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제일의 윤리경영」을 모토로 삼아, 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기반 조성, ② 청렴교육 강화 및 행동강령 내실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청렴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운영, 외부적으로는 시민감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청렴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참여·자율에 기반한 청렴교육 환경 조성,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개선,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을 시행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 지속전개로 행자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및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⑦ 그동안의 이력과 경력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의 역할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등 서울형에너지정책의 집행을 통하여 서울시를 에너지 생산도시로 변모시키고 시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시, 시의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각종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실천 방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의 저의 경력 즉, 집단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과 사업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와 업무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환경부 정부혁신 자문위원 및 규제개혁 대기분과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 전문위원,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 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변화에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 분야와 함께 에너지 신사업분야 등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서울시를 친환경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서울형 에너지정책』수행에 기여하겠습니다.

1-⑧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경력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 내부에서 일부 반감이 예상되는데 내부 통합을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 2년여 동안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일 하면서 자기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등 직원들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지만 이를 결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 특히 집단에너지사업단은 그동안 위·수탁 체계 운영이 지속되면서 일정부분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역량을 조속히 결집하고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과거 시민단체에 몸 담고 있을 때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력 구성원의 눈높이 맞

취 직원들과 직·간접적인 대화를 강화하여 ‘소통’ ‘경청’을 활성화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전북 부안 방폐장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서해안 (태안)유류 유출 사고 유정 조사 및 환경보건조사 연구 경험 등

-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30여명 청년직원(입사 4년 미만)으로 구성된 「청년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발전, 업무향상, 관행개선을 위한 창의적 사업제안 및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15년 노사문화 혁신 「노사협력 및 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노사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영 혁신적 과제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⑨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로서의 운영 소신과 포부는 무엇인가?

- 저는 최근 국내에서는 동해안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해외에서는 파리기후협정이 공식 발효되어 범국가적으로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최초 광역지자체 에너지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첫 사장후보자로 서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난 20년간 시민환경전문가로서 수많은 에너지와 환경정책 현안들을 해결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최근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으로서 성공적인 흑자전환의 성과를 거둔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를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리더로서의 화합과 소통의 마인드를 가지고 바깥으로는 공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사업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안으로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사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첫째,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하수열 등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까지 전체 열원의 90%를 친환경 열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15년말 현재 친환경 열원 비율 70%)

-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겠습니다. 유희부지 내에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 20MW, 연료전지 90MW를 보급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셋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주요 도시기반시설과 대형 건물의 무분별한 에너지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물의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 넷째, 공사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위원회를 설립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동조합과 청년벤처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을 확대하여 항상 시민의 곁에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내외 지자체들과 협력 사업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대전환에도 더욱 노력하는 한편, 해외 도시들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업들을 통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명실상부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습니다.

1-⑩ 사장 후보자의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향후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조직 경영의 모든 것은 사람이다”라고 생각 할 정도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의 핵심은 채용 · 승진 · 전보 · 상벌에 있어서 공명정대함에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인사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먼저,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위원을 선임하여 개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서열명부, 대상인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승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추천, 근평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며, 인사고충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인사제도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 향후 인사정책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경로의 다변화(직위 공모제), 신규자 경력개발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구체화를 위해 공공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공기업 기준의 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⑪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서울시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목적은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이를 위하여, 친환경 열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청정에너지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으며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시와는 모든 안전에 대하여 소통하고 협력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서 시와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시와 목표의식을 같이하여 「원전하나줄이기」로 대변되는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⑫ 공사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시 서울시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우선 서울시의 지시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내외부 여건 및 공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면밀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해서 시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의 방향성이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13 공사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협의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의회의 반대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반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사업추진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게 있어서 시민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 20세기가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시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시스템이 다양화되고 분권화되면서, 시민들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행정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시민이란 단순히 피동적인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과 공공 정책 과정에서 협치, 혹은 공치의 권한을 갖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시민을 행정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행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일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정책 수립·진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시민 공모과정을 통해서도 시민위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는 시민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흔히 시민과 행정을 수평적 관계로 보고 있는 ‘협치(governance)’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을 공사의 수평적 파트너

로 인식하고, 협치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 사장후보자로서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신설 서울에너지공사가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이자 에너지 기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첫째, 청렴제일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청렴문화의 내재화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 둘째, 환경안전관리 의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사는 에너지공급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환경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뿐만아니라 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됩니다.
- 셋째, 자신의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시 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언제나 ‘시민’, ‘복지’ 중심의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신념을 지녀야 합니다. 공사의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사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한 열린 에너지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에너지공사 정책현안 과제

2-1) 서울에너지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며, 향후 3년 임기 내에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서울시는 에너지·환경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 시키고 서울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실행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는 임기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논의중인 마곡 CHP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17년 이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지열 등 분산형 전원 보

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발전사업자와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분산형 발전사업자로서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겠습니다.

- 둘째,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서울시의 건물효율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물의 에너지 이용 최적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송부문의 효율화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과 청년벤처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와 일자리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쾌적한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② 서울에너지공사 현안 과제는 무엇이며, 현안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에너지공사의 현안과제로는 마곡 열병합발전의 성공적 건설,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확보, 공사 재정 안정화가 있습니다.
먼저, 마곡 열병합발전은 서울시의 '20년 전력자립률 20% 달성' 목표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노후화된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대체 역할로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지난 30여년간 집단에너지사업에 전문화 되었기에 집단에너지사업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외부전문가 충원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집단에너지사업은 최근 적자 상태에서 탈피하여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의 재정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근 미활용에너지 연계열 활용 및 경영 효율화 등 수익 개선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이중 가장 최우선적 과제는 마곡 열병합발전의 성공적 건설입니다. 마곡 열병합발전 건설은 서울시 전력자립률 제고, 목동 열병합시설 대체, 공사사업의 수익성 개선 등에 다방면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마곡지구 열배관망 구축, 열전용 보일러 설치 등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마곡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마곡 열병합발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③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제주에너지공사 등 다른 에너지공기업과 비교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가지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쟁력향상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에너지공사의 강점은 우선 지난 30년간 축적된 집단에너지 운영 경험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사는 발전소 배열, 바이오 매스, 하수열, 등을 통한 신재생가능 열원 발굴과 분산형 가스 열병합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열공급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으로서 갖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용이하며 시민이 믿고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적 에너지원과의 경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는 비경제적 규제, 서울이라는 자연 환경적 제약,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험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공사의 사업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위해 공사는 첫째, 서울시의 제도 및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꾸준히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는 공사 내 에너지 연구소를 두어 서울시와의 에너지 정책 분석과 합리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건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서울시의 부족한 자연 자원을 대신할 만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ICT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혁신적으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 분야의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여 공사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④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 등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청렴도는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자질 이전에 직무능력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자기관리와 자기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자기관리와 자기성찰이 철저한 직원은 당연히 직무능력이 뛰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서울에너지공사는 신설 공사인만큼, 공사 설립 초기부터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제일의 윤리경영」을 모토로 삼아, 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기반 조성, ② 청렴교육 강화 및 행동강령 내실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청렴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운영, 외부적으로는 시민감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청렴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참여·자율에 기반한 청렴교육 환경 조성,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개선,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 지속전개로 행자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⑤ 집단에너지사업 열생산과정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미세먼지(CPM : 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에 대한 제어대책은?

-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운영중인 목동 / 노원열병합발전소는 청정연료인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 상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굴뚝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자동연속측정장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굴뚝에서 배출되는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은 현재 국내기준이 없으며, 국내 연구논문은 LNG를 사용하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응축성 미세먼지를 미국 EPA 등의 측정방법으로 측정·분석한 것입니다.
- 응축성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관리제어를 위해서는 인체유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중 유기성 물질의 정성과 정량을 밝혀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국내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연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사업단은 환경부의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기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응축수 미세먼지 환경측정 용역 평가를 통해 배출량 파악 및 저감기술 등의 신기술, 전문장비를 도입하여 응축성 미세먼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2-⑥ 서울에너지공사가 떠안게 되는 부가가치세 부과내용과 법원판결이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기간 중 '06년 1기분부터 '12년 2기분까지의 7년간 수탁사업비 1조 3천억원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2,259억원을 포함한 총 2,432억원을 과세하였고, SH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 2월 부과세액 전액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13년 12월 심판청구 이후 현재 조세심판원의 2차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2-⑦ 2015년, 2016년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가장 큰 흑자요인은 연료비 하락에 기인하는데 부천 GS 파워,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값싼 열원공급이외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은 무엇이며,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값싼 열원 개발 이외에 마곡 CHP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마곡 CHP를 통한 연간 순수익은 약 2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곡 CHP는 서남하수열과 연료전지 등 미활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저가 열원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는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대륜발전(별내에너지) 잉여열(25만Gcal/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연료전지 발전배열 이용 등을 통한 수익 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 현재 부채는 마곡 투자사업비와 긴급 차입금(운영결손 충당)에 따른 712억원이며, 향후 공사의 부채는 상당부분 마곡 투자비에 따른 부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6년 이전 결산잉여금 약 150억원으로 공사출범과 함께 우선 상환하고 저가 열원의 활용과 마곡 CHP 건설을 통한 수지 개선으로 2026년까지 부채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마곡부지 투자, 시민펀드 등을 통하여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별도로 시행할 것입니다.

2-⑧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으로 2015년, 2016년 채용인사는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2016년 채용과 관련하여 김영란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장후보자의 입장은?

- 2015년, 2016년 경력직 채용 인사는 서울에너지공사 출범과 관련한 공사설립 및 신사업

분야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함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되었습니다.

- 2016년 채용은 서울시의 “SH집단에너지사업단 직제개편 승인 통보(서울시 녹색에너지과-14776, '16.8.30)”에 의거, 사업단 정원 범위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신사업분야 및 에너지연구소 최소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 일부 언론에 회자된 Y씨의 경우, “학위취득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로 공고된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른 합격자와 달리 임용날짜를 1개월 늦춘 것은 응시요건 상 서류접수일 기준 ('16.8.30) 2개월 이내('16.10.29)인 10월 24일 독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만약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2016.10.24 최종 박사학위 취득을 확인한 후 임용한 것입니다. 이는 Y씨의 개인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회사의 행정처리 상 필요에 의한 결정 이었습니다.
- 경력직 합격자 선발은 대·내외 평가위원을 통한 1차 서류 전형을 시행하였고 교수, 변호사, 기업인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면접위원들의 개별 면접과 과제 면접을 병행 심사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 타 기관사례

- 한국기계연구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취득)
- 한국식품연구원(임용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취득)
- 국립축산과학원(서류접수일 기준 2개월 미만 취득)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종 합격자 통보일 기준 3개월 이내)

2-⑨ 사회운동가 출신으로서 노조에 대한 기본인식과 향후 노조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 인가? 현재 노동조합에서 사장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서울에너지공사는 새로 출범하는 공사로써 해결해야할 난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운영하기 위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사 설립 후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노·사간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의식을 함께 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먼저 시행할 것이며, 사내 협의 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노사간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부임 이후 그동안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공사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포괄적 근로승계 정관 명시를 요구하며 임용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공사의 조례 및 정관제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자 책임사항으로 사업단장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는 법과 제도에 위배·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힘쓸 것입니다.

2-⑩ 2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중 관련하여 에너지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방안은?

- 서울은 건물과 인프라 밀집 도시이므로 대규모 풍력 발전과 같은 설비를 건설할 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풍부합니다. 이들 자원을 이용한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서울시 및 시산하기관의 협조를 받아 유휴부지에 대한 전수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당시 검토되었으나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겠습니다.
- 공사는 지속적으로 지역난방 연료를 다각화하여 현재 LNG 보일러,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의 연소열, 발전소 폐열 그리고 물재생 센터의 하수열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대폭 늘려 '25년까지 전체 열원의 90%를 친환경 열원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료전지의 폐열 활용도를 높이고 지열을 활용한 열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하수열 등도 회수하여 열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타 지자체와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서울의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은 공간과 자연자원의 부족으로 완벽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서울 시민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⑪ 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견해 및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목적은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이를 위하여, 친환경 열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청정에너지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으며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시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으며 시와 목표의식을 같이하여 「원전하 나줄이기」로 대변되는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 사장후보자의 이전 경력에 대한 문제제기

3-① 집단에너지사업단 소속 전문위원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에 대한 사장후보자의 입장은 ?

- 사업단 상근 전문위원 채용 당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정과 내규에 근거하여 채용되었습니다.
- SH공사 규정 : 직제규정 제11조(전문위원 등), 인사규정 제5조(고문 등) 제1항
 - 직제규정 제 11 조 (전문위원 등) 공사는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 위원 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 인사규정 제 5 조 (고문등) ①사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 문, 자문 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집단에너지사업단 시행내규 : 시행내규 제8조(정원) 제2항
 - 시행내규 제 8 조 (정원) ①사업단의 직급별·직종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②사업단에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2002. 3. 7.제정)
- 채용공고는 사업단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안전행정부 나라일터에 공고되었습니다. 면접은 2차로 진행되었으며, 진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면접>

- 면접위원 : 내부 1인, 외부 4인(서울시 2인, 학계 1인, 서울연구원 1인)
- 면접심사 항목(SH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3조 4항 1호)
 - ① 직장인으로서의 정신자세(10점) ② 종합적 판단, 경험적용 능력(30점)
 - ③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30점) ④ 창의력, 전문성(20점) ⑤ 품행, 청렴성, 성실성(10점)
- 평가방법 : 최상 및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의 평균점수

<2차 면접>

- 면접위원 : 사업단장
- 평가방법 : 사업단장 개별 면접 후, 최고득점자 선발

3-② 2014년 하반기, 2015 상반기 전문위원 업무평가 논란에 관한 사장 후보자의 입장은 ?

- 사업단 전문위원으로서 마곡 열원시설 건설의 제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법령, 정부 및 서울시 환경정책 대응에 노력하였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기여하였습니다.
- 사업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여한 주요 업무 성과는,
 - 정부 및 서울시 환경정책 대응,
 -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부지 매입 방안 건의(SH공사 사장)
 -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조기 준공 필요성(재원조달계획, 적자해소방안) 제시
 - 서울연구원 용역 보고서 수정, 발전소 지원 기금 금액 및 주민지원대책 수립 기여
 - 환경법령, 정부 및 서울시 환경정책, 국제동향 등 모니터링
 - 수도권 광역 열배관망 현황 검토(열배관망 추진현황, 열수요 확대 등)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선도
 - 지역에너지공사 추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 및 의견 개진
 - 2015년 이클레이 총회 참석 및 의견 개진
 - 독립적인 서울시 에너지 기구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기여

3-③ 2015년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승진임용 논란에 관한 사장 후보자의 입장은?

-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임면권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서울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업무 위탁업체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15. 7. 1일 기존 단장(서울시 2급 부이사관 사업단 단장 파견근무) 파견해제 후, 내부직원 중 선정된 3인에 대하여 공사사장 면접을 거쳐 ‘15. 7.13일 신임단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3-④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수행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저는 그동안 환경·에너지정책 분야에 대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시민환경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환경부의 정부혁신 자문위원 및 규제개혁 대기분과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 전문위원,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많은 사람들과 일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지자체 단체장, 국회 및 중앙 정부 행정부문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 서울시에너지공사의 사장직을 수행해나가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련 분야 저서 및 보고서

-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 (‘08년)
- 애들아! DMZ에서 공을 차자(‘11년)
-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 환경백서(‘11년)
-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08년)

* 연구 및 과제수행

-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제안(‘07년)

- 그동안 몸담았던 민간단체들도 단순한 시민 홍보 및 캠페인 운동을 넘어 연구역량 강화와 정책 실행 경험을 통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획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 및 에너지 민간단체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민간단체의 강화된 전문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